

## 우리나라 사료업체의 인디아 투자 방안 ②



정 일 병  
국제 축산연구소 상주연구원

(지난호의 계속)

그런데, 인디아 사람들 중, 인구의 80%를 점하는 힌두교도는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회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나 우유나 유제품은, 종교에 관계없이 인디아의 모든 국민이 섭취한다. 특히 인디아 힌두교도의 지배계급인 브라만들은, 우리나라 불교의 승려들과 같이 채식주의자들인데도, 동물성 단백질인 우유와 유제품을 식물성 식품으로 생각하여 섭취하고 있다. 한편, 인디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계란(일부 브라만 등의 상위 캐스트들은 계란을 육류로 취급하여 섭취를 하지 않음)과 닭고기 및 양고기는 섭취한다. 생선의 경우는 주로 해변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내륙에서는 소

비가 많지 않고, 특히 닭고기는 양고기에 비해 가격이 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소비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데,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우유와 계란은 3%, 닭고기는 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잠재성 때문에 많은 구미와 미주의 선진 축산국의 축산업 및 관련업계가 인디아 축산 및 관련 업계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Heinz, Nestle, SmithKline Beecham, Nutricia와 Baskin Robins 와 같은 다국적 회사는 이미, 진출하였고, Hassia-Redatron, Invensys, IMV, Niro, Siebe (APV), Tetra Pak, Westfalia와 같은 세계유수의 우유관

런 제품 제조회사들도,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합작을 통해 인디아에 진출하고 있고, Alltech, Basf,Bayer,Cyanamid, Elanco,Glaxo, Hoechst, Intervet(AKZO), Novartis, Pfizer, Rhodia, Roche, Upjon등 사료 첨가제, 동물용의약품 제조회사들도 인디아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인디아 가축 1두당 축산물 생산성은 물소와 산양의 젖 생산성과 계란의 생산성을 제외하고는 세계 평균 생산성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다(표 8참조).

따라서 인디아 정부는 가축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종축의 개량은 물론, 사양기술 등의 새로운 사육기술 개발과 보급 및 도축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한 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디아 정부에서는 축산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향상 분야, 축산물 품질향상 분야, 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부가가치 증대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즉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s : FDI), 외국 기관 투자자의 투자(Foreign

표 7.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측성장률(%)

| 축산물  | 2010년 | 2020년 |
|------|-------|-------|
| 우유   | 3.3   | 3.5   |
| 쇠고기  | 1.1   | 1.3   |
| 양고기  | 2.1   | 2.0   |
| 돼지고기 | 2.8   | 3.0   |
| 닭고기  | 8.9   | 9.5   |
| 육류전체 | 2.8   | 3.5   |
| 계란   | 3.0   | 3.8   |

표 8 가축 1두당 축산물 생산성 비교

| 구분      | 인디아   | 세계평균    |
|---------|-------|---------|
| 우유(년/두) |       |         |
| 암소      | 936kg | 2,152kg |
| 물소      | 1,411 | 1,384   |
| 산양      | 138   | 84      |
| 고기(두당)  |       |         |
| 쇠고기     | 103   | 207     |
| 물소고기    | 138   | 140     |
| 면양고기    | 12    | 15      |
| 산양고기    | 10    | 12      |
| 돼지고기    | 35    | 78      |
| 닭고기     | 0.9   | 1.5     |
| 계란(수/년) | 11.9  | 10.1    |

Institutional Investments:FII), 인디아 사람으로 인디아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일종의 인디아 교포)의 투자(Non Resident Indians abroad : NRIs)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인디아의 농업은행(National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 NABARD)에서는, 낙농, 가금 및 물고기 양식분야에서, 인디아의 일반 상업은행이나, 협동조합 은행의 대출에 대해, 재융자를 해 주고 있는 등 금융지원을 해 주고 있는 등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 4. 인디아의 배합사료 산업 현황과 전망 및 투자 방안

##### 가. 인디아 배합 사료 생산 현황과 전망

인디아의 사료산업도 우리나라와 같이, 1965년경부터 발전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북부 인디아와 서부 인디아에 중간 규모의 사료공장이 건설되었는데, 당시에는 젓소용 배합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건설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디아 배합사료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배합사료는 닭 사료가 대부분이며, 전업화 및 계열화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가금 산업의 발전 추세로 보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현재 인디아에서 생산한 배합 사료 생산액은 미화로 대략 10억불정도로 추산). 그런데, 인디아 사료협회 (CLFMA : Compound Live-stock Feed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India)에 의하면, 인디아가 필요로 하는 소 배합 사료는 6천만 톤, 닭 배합사료는 9백만 톤이나. 현재 소 배합사료는 필요량의 3%인 155만 톤, 가금배합사료는 13%정도인 117만 톤 정도의 배합사료만이 생산 중이라고 한다(표 9참조), 지역별로는 인디아 남부와 서부가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의 87%을 생산중인데, 소 사료의 경우, 인디아 서부지역이 전체 소사료 생산량의 60%를 생산하고 있으며, 닭 사료의 경우는 인디아 남부지역이 전체 닭 사료 생산량의 51%을 생산하는 등, 소는 인디아 서부 지역, 닭은 인디아 남부지역이 주 생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표 9참조).

그러나 소는 경작지를 갖고 있지 않은 가난한 농가들, 즉 1-3두의 정도의 젓소(또는 물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5-10kg 내외의 우유를 생산, 판매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아주 가난한 농가(약 7천만호)들로 젓소(물소) 사육도 일반 소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거의 방사 상태(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먹는 사육)로 사육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농가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이 거의 사료비가 들지

표 9 지역별 배합사료 생산량(천 톤)

| 지역 | 소와 기타가축사료 | 가금사료   | 합계      |
|----|-----------|--------|---------|
| 남부 | 558.0     | 596.7  | 1,154.7 |
| 북부 | 46.5      | 245.7  | 292.2   |
| 서부 | 930.0     | 292.5  | 1,222.5 |
| 동부 | 15.5      | 35.1   | 50.6    |
| 합계 | 1,550.0   | 1170.0 | 2,720.0 |

않는 방사 사육 방식에 익숙해 있어, 거의 모든 농가가 배합사료를 급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농가들이 거의 사육비를 들이지 않고 젖소를 기르기 때문에, 농가가 우유 수집상이나 중개상에게 판매하는 우유 1kg 당 단가는 7루피(140원)으로, 배합사료 1kg 당 단가와 거의 같은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젖소농가는 배합사료를 먹이면,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전업 규모로 우유를 생산하는 일부 농가의 경우는 우유 수집상이나 중개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시내까지 운반하여 가공한 뒤, 농장에서 이들 중개상에게 팔 때보다 많게는 1kg당 4-5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직접 배달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우유를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배합사료 공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하거나, 자체 농장에 자가 배합사료 시설을 설치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아울러 조사료(수수대의 경우 물소가 좋아하는 조사료로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경우, 배합사료 단가와 같이 1kg에 140원에 거래되고 있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등, 산유량에 맞는 과학적인 사양을 하고

있다. 특히 인디아의 경우,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자급하고 있고 축산농가의 경우에도, 배합사료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배합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가 소형배합기 만을 갖추면 인디아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디아의 소 배합사료는 농가 자가 배합사료 생산이 늘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닭 배합사료는 산란계와 육계배합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란계 배합사료는 전 기업 산란계 농가가 자가 농장에 배합기계를 설치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 기업 농가의 경우, 산란계 사양에 대한 기본 기술을 갖추고 있어, 사료의 품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데에 비해, 배합사료 공장에서는 이들 개개 산란계 농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한다. 아울러 인디아의 경우, 배합사료 원료사료를 인디아 내에서 전량 자급하고 있어, 배합사료공장이 구입하는 원료사료구입 단가나 전 기업 농가가 구입하는 원료사료 단가에 가격차이가 없다고 하며, 인디아는 노동자의 인건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농장에서 자

표 10. 인디아에서 사용중인 주요한 가금용 사료

| 에너지사료            | 단백질 사료 | 기타    |
|------------------|--------|-------|
| 옥수수              | 대두박    | 공기름   |
| 쌀 찌라기            | 어분     | 옥수수기름 |
| 조 (Pearl millet) | 해바라기박  | 무기물등  |
| 밀                | 땅콩박    |       |
| 수수               | 육분     |       |
| 쌀겨               |        |       |
| 사용비율             |        |       |
| 60-65%           | 30-35% | 5%    |

가 배합사료를 만들면, 배합사료공장에서 사료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산란계의 경우에도 전업 낙농농가와 마찬가지로, 거의 자가 배합사료를 이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육계배합사료의 경우는 배합사료를 섭취한 육계의 성장률 증가가 배합사료 구입가격 보다 높은 증가를 나타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비약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인디아에서 닭 배합사료는 육계사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 닭 사료는 분쇄나 펠릿 등의 완전 배합사료와 옥수수 등의 에너지원만을 빼고 만들어지는 두 가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데, 인디아에서의 배합사료는 결국 육계산업 발전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물고기 양식용 사료의 경우는, 사료를 물에 뜨게 하는 등의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인디아의 배합사료는 전업화와 규모화가 가능한 축종인, 육계와 물고기사료 그리고 산란계와 젓

소사료 순으로 발전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여기서는 가금용 사료를 중심으로 인디아의 배합사료에 대한 현황과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나. 인디아의 가금용 사료수급 동향

인디아에서 사용 중인 주요한 가금용 사료는 에너지 공급원으로는 옥수수가, 단백질공급원으로는 대두박이 주 원료사료로 사용 중이다. 그러나 표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쌀 찌라기, 조, 밀, 수수 또는 쌀겨가 옥수수와 함께 사용 중이고, 어분, 해바라기박, 땅콩박, 육분 등이 대두박과 함께 이용 중이다.

한편 인디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옥수수 90%는 Kharif시즌인 6-10월 사이에 생산되고, 나머지 10%는 Rabi시즌인 11-2월에 생산되고 있다. 인디아의 옥수수 생산량은 연간 12백만 정도인데, 이중 7백만 톤은 식용 등으로, 나머지 5백

표 11. 인디아의 옥수수의 수급동향

| 구분        | 재배면적<br>(천 ha) | ha 당<br>생산량(톤) | 총생산량<br>(천톤) | 수입<br>(천톤) | 사용내역(천톤) |       |       |               |
|-----------|----------------|----------------|--------------|------------|----------|-------|-------|---------------|
|           |                |                |              |            | 전체       | 식용    | 사료    | 사료사용<br>비중(%) |
| 년도별       |                |                |              |            |          |       |       |               |
| 1969-71   | 5,794          | 1.05           | 6,087        | 18         | 6,405    | 6,246 | 158   | 2.5           |
| 1979-81   | 5,887          | 1.10           | 6,486        | 9          | 6,521    | 5,921 | 600   | 9.2           |
| 1989-91   | 5,893          | 1.51           | 8,891        | 0          | 8,956    | 6,839 | 2,117 | 23.6          |
| 1994-96   | 6,121          | 1.58           | 9,675        | 0          | 9,553    | 6,987 | 2,567 | 26.9          |
| 1999-2001 | 6,461          | 1.81           | 11,679       | 133        | 11,717   | 6,783 | 4,933 | 42.1          |
| 성장률       |                |                |              |            |          |       |       |               |
| 1970-80   | 0.2            | 0.5            | 0.6          | -6.9       | 0.2      | -0.5  | 14.3  |               |
| 1980-90   | 0.0            | 3.2            | 3.2          | -100       | 3.2      | 1.5   | 13.4  |               |
| 1990-2000 | 0.9            | 1.8            | 1.8          | -          | 2.7      | -0.1  | 8.8   |               |
| 1995-2000 | 1.1            | 2.7            | 2.7          | -          | 4.2      | -0.6  | 14.0  |               |

만 톤은 닭 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금생산량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디아에서 사료로 사용 중인 옥수수는 1990년 말 이후 급증하여 현재는 전체생산량의 45%정도 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1참조). 그러나 인디아의 ha당 옥수수 생산량은 1.8톤 정도로, 미국 8.0톤, 중국 4.4, 태국 3.2톤보다 낮은 수확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디아에서는 옥수수를 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농경지에서 재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배하는 옥수수 종자도 30%정도만이 다수확 품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정부에

서는 다수확 교잡종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된 옥수수도 쌀이나 밀등의 식량과 마찬가지로 가격지지 정책을 사용해 생산량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한편 인디아는 2000년 4월부터 옥수수 등 930개 품목에 대해 Open General Licence (OGL)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여 원원종계, 닭고기, 계란, 난황, 우유와 유제품 수입이 자유화되었고, 2003년 4월에는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만 내면 수입가능한 수입자유화조치를 취하였다. 옥수수의 경우도 51%의 수입관세만 내면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조취를 취했다. 이와 함께 40만 톤을 15%관세로 수입하는 할당관세조치

표12. 인디아의 원료사료 및 가금 생산물 수입 정책

| HTS코드     | 원료사료   | 수입정책           | 관세 (%) |
|-----------|--------|----------------|--------|
| 100590    | 옥수수    | 자유/할당관세 (TRQ)* | 15/51  |
| 100700    | 수수     | 수입기관지정         | 51.0   |
| 2306      | 대두박    | 자유             | 15.3   |
| 230120    | 어분     | 자유             | 5.1    |
| 230990 02 | 가금용 사료 | 30.6           |        |
| 010511    | 원원종계   | 수입허가           | 30.6   |
| 0207      | 닭고기    | 수입허가           | 100.0  |
| 0407      | 계란     | 수입허가           | 30.6   |
| 0408      | 난황     | 수입허가           | 30.6   |

표13. 인디아의 국내산 옥수수와 수입 산 옥수수와와의 가격차이

| 구분           | 1996/97 | 1997/98 | 1998/99 | 1999/2000 | 2000/01 |
|--------------|---------|---------|---------|-----------|---------|
| 국내산가격        |         |         |         |           |         |
| -도매가격(\$/톤)  | 127     | 01      | 133     | 124       | 99      |
| 미국산 수입가      |         |         |         |           |         |
| -CIF가격(\$/톤) | 164     | 144     | 128     | 128       | 142     |
| 가격차이(\$/톤)   | -36     | -43     | 5       | -4        | -44     |
| 수입량(천톤)      | 0       | 1       | 175     | 250       | 50      |

를 취했는데, 매년 5만씩 수입량을 늘려 2003년에는 50만 톤을 할당관세로 수입하는 조치를 취했다( 표 12 참조)

그러나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는 옥수수의 인디아 국내 판매가가 수입가보다 낮아 거의 수입되고 있지 않다. 대두박 등의 박류의 경우에도 인디아 국내 판매가가 세계시장 가격보다 낮아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대두박의 경우도, 축산물소비 증가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인디아에 대두가 재배된 것은 1960년말부터 인데, 70-80년대에 재배면적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현재, 대두에서 생산된 대두박의 40% 정도가 가축사료로 사용되고 60% 정도인 222만톤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대두박은 1990년대 이후 인디아 국내의 가축사료의 사용량 증대로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표 14참조).

그러나 인디아의 1ha 당 대두생산량은 1톤

표 14. 인디아 대두박 수급동향

| 년도별       | 대두    |               |       | 대두박          |             |          |      |       |
|-----------|-------|---------------|-------|--------------|-------------|----------|------|-------|
|           | 재배면적  | ha당<br>생산량(톤) | 총생산량  | 총생산량<br>(천톤) | 수출량<br>(천톤) | 사용내역(천톤) |      |       |
|           |       |               |       |              |             | 전체       | 식품등  | 사료    |
| 1969-71   | 29    | 0.56          | 16    | 6            | 0           | 6        | 0    | 6     |
| 1979-81   | 541   | 0.56          | 420   | 291          | 122         | 169      | 8    | 161   |
| 1989-91   | 2,667 | 0.87          | 2,300 | 1,653        | 1,183       | 470      | 33   | 437   |
| 1994-96   | 4,614 | 0.85          | 3,937 | 2,773        | 2,210       | 563      | 47   | 517   |
| 1999-2001 | 5,748 | 0.93          | 5,350 | 3,572        | 2,220       | 1,375    | 70   | 1,305 |
| 성장률       |       |               |       |              |             |          |      |       |
| 1970-80   | 34.1  | 3.5           | 38.4  | 46.6         | -           | 39.9     | -    | 38.2  |
| 1980-90   | 17.3  | 1.0           | 18.5  | 19.0         | 25.5        | 10.8     | 15.8 | 10.5  |
| 1990-2000 | 8.0   | 0.7           | 8.8   | 8.0          | 6.5         | 11.3     | 7.8  | 11.6  |
| 1995-2000 | 4.5   | 1.8           | 6.3   | 5.2          | 0.1         | 19.5     | 8.6  | 20.4  |

표 15. 인디아와 상대국의 ha당 생산량비교

| 구분   | 세계 최고 생산량   | 인디아 |
|------|-------------|-----|
| 대두   | 2.62(미국)    | 1.0 |
| 채종   | 3.52(프랑스)   | 1.0 |
| 해바라기 | 1.78(아르헨티나) | 1.0 |
| 땅콩   | 2.82(미국)    | 1.5 |
| 참깨   | 0.78(중국)0.6 |     |

출처 :SEA Collection (2000)

정도에 불과한 실정으로 미국의 1 ha 당 생산량의 40%정도에 불과 한 실정이다(표 15참조). 인디아에서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비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가격보장정책 등이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디아의 박류 생산량 수준, 즉 기술 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을 중요정책으로 채택 할 경우, 현재 목화씨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인디아도 유전자변형 옥수수과 대두 종자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인디아 배합사료 품질 등 기술 현황과 이슈

인디아에서는 배합사료를, Compound feed 라고 하고 있다. 이 것은 소형의 배합기로 농가에서 만든 자가 배합사료, 즉 Self-mixed feed 와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배합사료는 화학 분석실험실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축 영양학 전문가의 지도하에 만들어지는 사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인디아의 배합사료 공장들은 사료의 일반 화학성분을 물론, 아미노산, 마이코톡신 등의 곰팡이 오염, 탄닌이나 효소활성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등의 미생물 오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세미나나 산·학·관 연구를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닭 사료의 경우, 산란계는 52주에 310개 계란을 얻고 있고 육계의 경우, 6주령에 체중 2.0Kg에 도달하는 육계를 사료 요구율 1.8-1.9 수준으로 생산해 내고 있

다고 한다.

또 인디아의 사료 영양 분야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수행해왔는데, 1960대에는 인디아가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단미사료에 대한 일반성분과 대사에너지 및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1970년대에는 인디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가지 농산부산물에 대한 화학 및 생물학적인 사료가치를 구명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에너지와 아미노산의 비율과 비타민과 무기물 요구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반추동물에 대한 우회(Bypass) 지방과 단백질에 대한 연구와 우유, 계란 및 고기생산을 위한 합성아미노산 등 여러가지 사료첨가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디아 정부에서는 배합사료의 경우에도 식량자원을 근간으로 하여 생산되고 있는 만큼 생활필수품으로 취급하여 정부의 통제 하에 생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모든 배합사료는 인디아 중앙정부기구인 표준국(The 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이 결정한 젓소와 가금에 대한 배합사료의 영양수준에 따라 사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부의 규제일변도 생각에 대해 업계는 사료의 품질을 개선시키는데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인디아는 다른 나라에서는 물리고 있지 않는 DL-메치오닌과 L-라이신, 그리고 L-트레오닌 등의 합성아미노산에 대해, 이들 제품이 인디아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40%에 가까운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한다.



## 라. 배합사료 분야에 대한 투자 방안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인디아의 배합사료 산업은 인디아 사료협회가 추산한 바와 같이, 소 배합사료는 6천만 톤, 닭 배합사료는 9백만 톤이 필요하지만, 현재 인디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 배합사료는 필요량의 3%, 가금배합사료는 필요량의 13%정도만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까지 우유와 계란은 3%, 닭고기는 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선진 축산국가 사료업체와 비교해, 기술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국내에서 단기간 내에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미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사료업체의 인디아 시장 진출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이 곳 국제연구소에 있으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서양의 축산 선진국의 경우, 국제 연구소나 자국의 해외 협력 처(단, NGO, 또는 진출코자 하는 해당 국가의 국가 연구소에 기여금 형식으로 연구비를 투자하는데, 연구비 투자 조건에 공동연구나 단순 무상 지원 형식으로 조건을 건다. 이 후 연구를 수행하는데, 연구수행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자국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그리고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국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자국의 해당 및 관련업체와 공유(일부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함)하며, 자국의 해당 및 관련업체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진출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 국가에 진출을 계획하는 업체에서는 2-3년 정도의 기간 동안, 현지에서 지사나 대리점을 설치하고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진출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공동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여, 판매방향 등을 설정하고, 또 지사나 대리점에서는 현지사정은 물론, 외국 투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추후 활용할 인력 스타우트 계획 수립 및 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같이, 서양의 축산 및 관련업체는 정부나 협회 차원의 전문가 조사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하여, 이익이 된다는 확신이 서면 진출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축산 및 관련업체는 거의 자체 정보만으로 진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바, 어쩌다 운이 맞아, 대박을 터트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결국 철수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해당전문가 파견이 거의 없어, 해당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농협, 사료협회 등이 주축이 되고, 농촌진흥청 내 관련연구소의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여, 현지 연구소 등과 현지에 대한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내 해당 및 관련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인디아에 대한 사료업체의 투자 방안에는 첫째: 국내 사료 및 관련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투자 하는 방안, 둘째: 단독으로 투자 하는 방안, 셋째: 첫째나 둘째 방법으로 투자되 인디아 사료 및 관련 기업과 합작으로 투자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인디아의 축산 및 관련 산업은 수직 계열의 육계산업의 성공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과 유통을 하나의 체인으로 연결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한다.

물론 인디아는 면적이 크고 지역적으로 인종 및 종교적인 차이도 커서 식문화에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작년 11월 우리나라 사료협회 R & D 위원들께서 이 곳 인디아를 방문했을 때, 방문 주선을 하고, 농가, 사료공장 및 관련 공무원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본 바, 소규모 투자보다는 대단위 투자 시에는 기존의 인디아 업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등의 인디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도 부응할 수가 있어, 인디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혜택, 즉 공장부지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명한 투자 방안이라기보다는 단순 정보 및 필자의 생각을 제시한 것인데, UN의 세계 식량기구(FAO)가 제시한 인디아의 축산업에 대한 투자방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낙농분야

- 시장 수요에 맞는 고 부가가치의 유제품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이러한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육종, 사료 생산, 질병제어, 보험, 수송, 가공, 포장, 판매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및 잠재적인 가능성 조사를 위한 인디아 현지 파트너를 확보 하도록 한다.
- 필요하다면, 인디아 국내 연구소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판매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인디아 현지에 대리점(상주인력)을 배치한다.
- 대리점에서는 현지사정은 물론, 외국 투자 회사, 투자자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인력

에 대한 훈련 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2)가금분야

- 가금 분야의 경우, 육종, 사양, 계사 및 질병제어, 국내 시장 및 수출시장에 적합한 가공과 유통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 외국투자자의 경우, 인디아의 가금생산자와 협력방안을 찾아야한다.
- 외국의 연구소에서는 인디아의 ICAR (India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 인디아의 농촌진흥청), 대학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의 지원자(donor)기관에서는 인디아 정부, 농업은행(NABARD),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처( APEND: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와 협력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3) 물고기 양식업

- 집약적인 물고기 양식 농장을 운영 한다
- 물고기 양식장 개발 및 장기간 임대 방안을 수립 한다
- 오리, 돼지, 가금 및 원예 농업과 물고기 양식업을 통합하여 일원화 하는 방안을 구상 할수 있다
- 북동인디아의 경우 만곡부 호수의 개발하여, 양식업을 할 필요가 있다
- 바다의 경우 물고기 집을 설치하여 운영 한다
- 해양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 한다
- 수출을 위한 다양하고 부가 가치가 높은 생 산물을 개발한다

## 5. 맺는 말

인디아는 현재 매년 8%이상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축산업은 경제 성장률 보다 높은 매년 9%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배합사료산업의 경우에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디아는 세계 제 1위의 소 사육(3억 두) 국가일 뿐 아니라, 세계 제 1위의 우유 생산국(세계 총생산 우유의 15%정도인 87백만 톤 생산)이고, 세계 제 5위의 계란(년 400억 개) 생산국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축을 사육하는 데에만, 소의 경우, 6천만 톤, 닭의 경우는 9백만 톤이 배합사료가 필요하다 한다. 그러나 현재, 인디아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와 가금 배합사료는 필요량의 3%와 13%에 불과하다고 하며, 경제성장과 함께, 2020년까지 매년 3-9%이상의 성장이 요구되는 축산업의 성장을 고려할 때, 인디아의 배합사료산업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디아의 경우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자급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우에도, 배합사료 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국내에서 자유롭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가에 소형배합기만을 갖추면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기업화 사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산란계와 육계 및 물고기 양식 농가를 제외한 소 사육농가의 경우는, 경작지를 갖고 있지 않은 1-3두의 정도의 젖소(또는 물소)를 사육하는 농기들로 거의 방사하는 형태로 사육하여, 배합사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합 사료업체가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단순히 배합사료 공장만을 지어 기존의 인디아 배합사료공장과의 경쟁하면서 사료를 판매하여 소득을 얻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디아는 방대한 국토 면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종교적, 인종적, 식문화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진출하고자하는 곳에 대한 최소 2-3년 정도의 연구조사와 함께, 인디아 현지에서 지사나 대리점을 설치하여, 충분한 준비를 한 뒤 진출하는 수순을 밝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디아의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인디아에 대한 사료업체의 진출은 생산과 유통을 한 개의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국내 생산, 도축, 가공, 시설 방역 및 유통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